+

전남의(義)정신 함양…'헌법교육' 강화

道교육청, 계엄령 역사·헌법 읽기 자료 개발 새학기 각 학교에 보급···'K-민주주의' 실현

전남도교육청이 '헌법교육'을 강화 한다.

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2·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이 대한민 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 기고 '전남 의(義)정신'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헌법교육을 실 시한다.

도교육청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'계엄령 역

사'와 '헌법읽기 자료'를 개발해 학생 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 획이다.

'계엄령 역사' 자료는 첫 계엄 선포로 발생했던 여수·순천 10·19사건 (1948년 10월21일 계엄령)을 비롯해 5·18민주화 운동의 원인이었던 1980년 5·17 비상계 엄 전국 확대 등 주요 비상계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과 헌법적 쟁점을

다룬다.

1980년 비상계엄은 5·18민주화운동 을 촉발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 거나 사망했으며, 1995년이 돼서야 '5·1 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'이 제정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.

'헌법 읽기' 자료는 이번 12·3 비상 계엄 사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 1조 와 제77조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의 원칙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

도교육청은 이들 자료를 2025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전남 의

(義) 정신을 이해하고, 성숙한 민주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또 민주주의 가치 실현 교육을 위해 헌법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교직원 연 수도 진행할 계획이다.

김대중 도교육감은 "이번 헌법교 육과 계엄령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 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"이라며 "전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 /김다이 기자

오늘일 날씨 🍑 해뜸 07:40 해짐 17:46 달뜸 21:07 달짐 09:47 광주 구름조금 -3/7 강릉 목포 구름조금 -2/5 -9/4 서울 여수 맑음 대전 -1/8 나주 구름조금 -5/7 -4/3 -5/5 독도 ۳ 완도 맑음 -1/7 -4/6 구례 맑음 -4/8 전주 대구 1/5 강진 맑음 해남 구름조금 -3/7 -4/5-5/8 광주 목포 장성 구름조금 -5/6 깥 Č 보성 맑음 -5/6 -3/7 부산 -2/5 순천 맑음 흑산도 영광 구름조금 0/9 제주 $\overset{\leftarrow}{\bigcirc}$ 진도 구름조금 흑산도 구름조금 -1/6 -1/6 0/7 6/8 고흥 맑음 -4/9 ●생활정보지수 세차 80 🏕 운동 40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실내운동 즐겨요 ●물때 ●바다 날씨 오전/파고(m) 지역 만조 간조 위치 | 오후/파고(m) 앞바다 0.5 - 1.50.5 - 1.004:03 | 09:25 1.0 - 2.00.5 - 1.516:49 | 22:01 먼바다(북) 남부 먼바다(남) 0.5 - 1.51.0 - 2.011:28 | 04:59 0.5 - 1.00.5 - 1.0앞바다 23:32 17:27 먼바다(동) 1.0-2.0 0.5 - 1.512:09 | 05:59 먼바다(서) 1.0-1.5 --:-- | 18:42 10.-1.5 ●전국 날씨 제주 1월 18일(토) **(-3/8) (-4/6) (1/11) (-5/10) (3/10) (-1/9)** \bigcirc (-1/7) \bigcirc (2/10) \bigcirc (-3/8) **(5/12)** ▶날씨안내 : 국번없이 131

"尹 체포 계기로 민주주의 교육장 필요"

광주·전남언론인회, 옛 전남도청 언론검열관실 복원 촉구

광주·전남언론인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"윤석열 체포는 대한민국 청년들 과 국민이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이뤄낸 성과"라며 "이번 사건은 민주 주의 수호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계 기가됐다"고밝혔다.

이어 "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1980년대로 남도청에 설치됐던 언론검열관실을 복 회귀했을 것"이라며 "윤석열과 그 의 주변 세력들이 허위 사실과 가짜 언론으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 한 행태를 지켜보며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

다"고 덧붙였다.

그러면서 5·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군이 설치한 옛 전남도청의 '언론검열 관실' 복원을 강조하며, 문화체육관광 부 복원추진단에 신속한 복원 작업을 촉구했다.

광주·전남언론인회는 "1980년 옛 전 원해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"며 "복원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행위는 '역사의 진실을 가로막는 행 태"라며 "분초의 시간도 늦춰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다. /주성학기자

내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

오전 11시 무안공항···추모 공연·헌화 등 희생자 넋 기려

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 안국제공항 2층에서 개최된다.

합동추모식은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 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, 무 안군이 주관한다. 유가족 700여명을 비 롯해 정부, 국회의원, 지자체 관계자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추모식은 추모 공연으로 시작한다. (사)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 20여명이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 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를 진행한다.

묵념에 이어 헌화식에선 희생자 179 명의 이름과 공항 2층 계단에 포스트잇 으로 남긴 조문객·유가족의 추모 메시 지 등을 LED로 송출하며 희생자의 넋 을 기린다. 희생자 가족 대표와 내빈들 의 추모사 후에는 '기억의 시간' 추모 영상을 상영한다. 사고 이후 국민의 성

원과 조문행렬, 현장 수습활동, 고인 명 복 기원 등 장면을 담았다. 희생자 사연 을 담은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도 이 어진다.

'내 영혼 바람되어' 추모곡 공연을 끝 으로 추모 행사가 막을 내리면 유가족 들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.

전남도는 행사장에서 유가족의 실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조・구급 소방 력을 배치하고 현장 의료지원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.

김영록 전남지사는 "이제 국가적 아픔 을치유하고새희망을향해나아가야할 때"라며 "유가족의 편에 서서 함께 슬픔 을 나누면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철저 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전 남도 차원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세 부적으로 제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"고말했다. /양시원기자

市교육청, 초등생 진로교육 '내실'

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 진로교육 에 내실을 기한다.

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맞 춤형 진로교육은 기존 중·고등학생 중 심의 진로교육에서 나아가 초등학생이 미래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

다.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초-중 전환기 진로교육 수업을 위해 '나와 함께 준비 하는 중학생활'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 고, 찾아가는 초6을 위한 중학교 생활 안내 특강도 진행한다.

이정선 시교육감은 "학생 개개인의 다 양성을고려한맞춤형진로교육을실현하 기 위해 교원 진로지도 역량 강화에 더욱 적극나서겠다"고말했다. /김다이기자



시청 건물 외벽에 시민들을 향한 명절 인사가

/김애리기자

담긴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.

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





주최: ◀ 광주매일신문 • 광주매일 ₩

후원: 🚧 광산구

+

111년의 시간 그리고...

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'매일 송정역전시장' 이 시작되었습니다. 111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[1913송정역시장]으로 바꿨고, 누적된 시간이 많은 만큼,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겐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겐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.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, 가게 형태,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.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,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. [1913송정역시장]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,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정기휴무 - 매월 둘째주 월요일, 자율 휴무- 매월 넷째주 월요일

광고문의 : 062)650-2099